

민주 ‘안철수 역할론’ 또 계파 갈등 촉발?

“安 입당때 내부 혼란 격화” 민주정책연 보고서 논란

민주통합당에서 ‘안철수 역할론’이 또 다시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통과 지도부 체제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변수의 부상으로 당내 긴장감은 높아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변수로 인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 주류와 비주류간의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한 ‘안철수 현상의 이해와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안 전 교수를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규정하고 당의 개혁만이 ‘안철수 현상과 세력’을 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교수의 입당에 대해서는 “내부 혼란이나 갈등이 격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안 전 교수가 당 개혁을 맡아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함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장, 비주류 측에서는 이 보고서에 친노 세력의 의중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친노 및 주류 진영에서 민주당이 안 전 교수에 대해 취해야 할 정치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변수의 영향력 최소화를 통해 당권 장악에 나서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주류 성향의 모 의원은 “안 전 교수의 변수는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면 할수록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중진 의원은 “당내 주류세력이

또 다시 당권 장악의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주류세력은 정치적 실패를 인정하고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히려 안철수 전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유도, 정치적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 안 전 교수 측이 결국 하나가 돼야 하지 만, 지금은 각자 몸집을 키우고 정책을 잘 만들어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합치는 노력을 해나가야 야당의 힘도 커지고 혼란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논란과 갈등이 확산될수록 안철수 변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지사 물세레’ 도의원 제명 의결

전남도의회 윤리위… 내달 1일 본회의 표결

전남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을 뿌린 통합진보당 안주용(비례) 의원의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의원 제명은 지난 1991년 전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대선 호남 불표는 충동적 선택’이란 발언을 한 박준영 지사는 여전히 도의회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28일 “이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의원 9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안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경석(창중)의원은 특위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도의회는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 안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결과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실제 제명은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62명 의원 가운데 진보의정 6명과 무소속 4명, 새누리당 1명 제외한 51명이 민주당 합당 소속이다.

또 윤리특위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안 의원의 제명을 결의해 이번 사태가 민주당 대 비민주당 진영의 갈등 대립으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전남도의회 일각에서는 “실제 제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물을 끼얹은 안 의원을 제명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미 박 지사에게 ‘충동적 선택’ 발언과 관련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이날 만난 박 지사가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테니, 의회는 의회대로 알아서 하라’고 밝히는 등 사과할 뜻이 없어 안 의원만 제명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광주 광산구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성관객’에 빗댔다가 제명당했고,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었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남구의회 의정경비 540만원

아웃도어 상품권 구매 의원에 지급

광주 남구의회가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 공적인 의정활동 경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 일부로, 방한복 구입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해 의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의회는 지난달 20일, 의정운영 공통 경비 가운데 540만 원을 ‘동절기 현장 활동을 위한 방한 장비 및 방한복 구매’ 예산으로 책정하고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권 10만원 짜리 54매

를 구입했다.

의회는 구입한 상품권을 구의원 12명에게 각 4매씩을, 의장 수행비서 2명에게는 각 3매씩을 지급했다.

의회 관계자는 “혹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설작업 등을 하는 의원들이 지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방한복 구입용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가족에게 썼고, 일부는 방한복이 아닌 면티 또는

바지 등 다른 의류를 구입하는 등 애초 상품권 지급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도 의원은 “방한복 구매를 위해 의회에서 상품권을 발간했지만, 이미 방한복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팔과 아내에게 썼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품권을 구입한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속칭 ‘업무추진비’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청회 등의 행사 및 위탁교육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 구매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출장장’ 해외연수 동구 의장 사퇴해야”

전공노 동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는 28일 “허위 출장비를 청구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1월25일자 1면, 28일자 2면〉

전공노 동구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장 본인이 출장비 결재를 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힘없는 하위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동구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동구청은 이번 해외연수 내용과 여비 지출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해 사실관계를 밝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 동구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예산 편성액(430만 원)보다 적은 액수(412만원)로 국외연수를 시행했기 때문에 출장비로 부족한 연수비를 충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출장비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알았고, 서류상만 납치료를 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업무 과다로 처리가 늦어 본의 아니게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자 노트

택시가 대중교통인가

지난 25일 급한 일로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내부는 곳곳에 발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골슬머리 장발에 수업을 답수룩하게 기른 40대 중반 정도의 이 기사는 풍조를 창문 너머로 버리고, 목적지로 향했다. 추운 날씨에 한참 창문을 내린 뒤에야 연기는 사라졌다.

손살같이 달리던 택시 앞에 신호등이 나타났다. 빨간불, 하지만 3차선에 있다가 1차선 쪽으로 슬금슬금 나가던 운전기사는 곧 신호를 위반하고 달렸다. 목적지까지 그는 무려 5차례 신호를 어겼으며, 몸이 앞으로 쏠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광주 택시는 법인 3424대와 개인 4797대를 합쳐 모두 8221대. 택시 1대당 시민 183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별다른 고민 없이 택시 면허를 내준 결과다.

공급 과잉 속에 개인택시는 그럭저럭 현상유지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기사들이 업체에 매일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택시다. 하루 종일 운전해 연료 주입하고 사납금까지 내야 매달 100여만 원의 급여가 나오는 직장에 오래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다. 노는 택시가 늘자, 업체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사에게 아예 택시를 내주고 사납금만 받는 방식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승객의 편안함이나 서비스는 안중에 없고 누가 물든 사납금만 들어오면 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내준 택시면허가 모두 사유화했다는 점이다. 업체는 면허대수에 따라 자산이 평가돼 매매되고, 개인택시

는 대당 수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사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수년째 발급하지 못했던 개인택시면허를 내주기를 위해 현재 12여여원을 투입해 법인택시 47대를 대당 2600만원씩 주고 사들이기도 했다. 이

택시는 당연히 과거 광주시가 면허를 내준 것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논란이다.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택시업계는 당장 파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조 9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법 개정에 앞서 정치권이든 업체든 잠재적 승객인 국민의 형세가 택시에 투입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chadol@kwangju.co.kr

“호남고속철 당초 계획노선 조기완공을”

호남관광광역의회 의장단협

인수위에 공동 건의문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호남권 공동현안에 대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전남도의회 김재무 의장, 임명규·송추조 부의장, 광주시의원 조호권 의장, 송경중·나종현 부의장, 전북도의회 최진희 의장, 배승철·소병대 부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결정과 관련 삼삼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광주지역 가전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전남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KTX) 당초 계획 노선 조기완공을,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촉구 등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또 “협력과 상생의 기초를 유지해 왔다면서 호남권역 미래발전을 위해 지역의회 간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으로 구성, 지난 2010년 11월 22일 발족했다. /최권길기자 cki@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남구 백운동 준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160㎡ 건평330㎡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편성시설 대지850㎡ 건평1146㎡ 감정가1억1천 최저가5억

단독주택

- ▷광산구 소촌동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평177㎡ 감정가19천만 최저가16천만
- ▷광산구 지평동 1층상가주택 대지208㎡ 건평76㎡ 감정가2천6백만 최저가1천8백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공단내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8억
-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내 2층공장 토지1504㎡ 건물996㎡ 감정가15억3천 최저가12억2천만
- ▷장성군 동화면 2층공장 토지1983㎡ 건물2320㎡ 감정가7억 최저가3억9천만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17억3천 최저가18억8천만

토지매매

- ▷장성군 삼서면 관리지역 전,임야 3699㎡ 감정가5억3천만 최저가3억7천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7천만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남로 대지 80 건평 300 감정 17억선 5층은 공실 전세 1억2천 월650만 임대 11억
- 요양병원직할 하순군 도곡온천지역 대지 1712건평 1681 대출10억 임대8억
- 광주역앞 4차선 도로 5층 건물 대지100 건평 370 대출 5억3천 5층은 공실 전세 6천 월 450 대 7억원
- 함평군 월야면 요양시설, 정신병원 직할 대지 3369 건물 3동 1116평 대출 3억 임대6억9천
- 양동 월파부근 신축건물 대지 132 건평 195 감정 은 11억이상 임대없을 대출 4억 5천 임대 7억2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부근 상업지 210평 건물은 2층구조 158평 공시지가 11억7천 임대 12억
- 서방시장 4거리 상업지 356평 건물 867 층층해서 병원, 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억4천 임대19억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읍신 대지 275 주택 52평 1억4500
- 광주역앞 종출동 대지 108 건평 397 원룸6 투룸17 대출3억 전세 8천에 월4400만원선 7억
- 북구 우산동 대지 100평 건평 412평 대출 6억 보증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선 임대 10억
- 하순군 도곡온천 가든 대지 433 건평 158평 5억3천
- 봉황면 철처리 땅 770평 주택 31평 전원생활 적합 아파트나 상가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별장부지 화순읍 수반리 371평 1억7천
- 별장유주택 순창군 화문산 대지 396평 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400평 가든 등 여러용도 타 물건과 교환가능 2억8천
- 화정동 화정역 인근 대로변 준주거 334평 오피스텔형 생활주택직할 대출 10억 임대 17억 3천만
- 함평 해남면 분장 4거리 100평 상가직할 1억 4천
- 비닐하우스 시설 나주시 봉황면 담 1417평 시설 600평 농림 대출 1억3천 임대 2억원천만
- 북동 상업지역 300평 원로 오피스텔 직할 7억8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웅센터 옆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과주점(일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 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택시 207대 대출 4억2천 대도가 8억5천 만원
- 대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대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파트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함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에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계신가요?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십니까?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골프장 18홀, 골프장 9홀, (상당환영)
- 전국 랜드마크 빌딩 다량 확보!
- 10억! 50억! 100억! 200억 물건 다양 보유 및 구함
- 고액 비밀 보장
-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분은
전화상담 후 사무실 내방하시면 귀한시간 내추신민들의
보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한번의 인연으로 평생 고객에게 신뢰를 남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매 물 ■

- 서구 상무지구 메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건물로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 서구 상무지구 내 훌륭한 사무나, 대지 524평
- 서구 상무지구 중심상업에 있는 건물로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 서구 광천동 최고 요지 빌딩 (광고료, 주차까지 최고) 대지 850평, 건평 2,620평.
- 북구 초대형 사무나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 서구 지평동 상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 최고 요지 ,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 송정지역 부근 상업지역 내 저렴한 땅 1,150평. (부자유량)

☎ 956-6660 / 010-2139-6255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암산 남측(장성호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쌍용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억45천만 원

- 설 명 ■ 위 토지는 장성 백암산남쪽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최정통 우택호의 지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호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좌우로 개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 본토지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요지
- 오염없이 전혀 없는 과수원
- 조용한 절기도원
- 희사의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마음대로 기어올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필요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0-3609-5221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정서건너편)